

피부미용전공자의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재편성 제안

홍미숙*, 김윤정
명지전문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과

The suggest the curriculum reorganization for improving certificate utilization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skin care

Mi-Sook Hong*, Yun-Jung Kim

Dept. of Beauty Management, Myoungji College

요약 우리나라 미용 대학 교육은 대부분 선진국과 비교하면 산업현장보다 학과 중심이다. 학과 중심은 현장의 직업 모듈보다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훈련시간도 유연한 구성보다 시간 이수가 졸업의 요건이 되고 있다. 이런 요건으로 인해 전공 학과에서는 자격증 취득이 교육훈련의 목표가 되고 있어 교육과정 내용과 현장 실무 훈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피부미용전공자의 학기 중 취득한 자격증 활용정도에 대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총 294명에게 자기평가기재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업 당시 자격증 활용도는 높았지만, 산업 현장에 진입한 후에 활용도는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부미용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피부미용학과 교육계에서는 피부미용 산업체의 방향과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산업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검토하면서 학과 중심의 교육 과정과 산업현장 실무 내용이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며 개발해야 하겠다.

Abstract Most of Korea's beauty college education focuses on the subject rather than the industrial field of the industrialized world. It is centered on subjects rather than on-site job modules, and training sessions are required for graduation of the training period rather than having flexible configurations. Therefore, the education curriculum and industrial field training are becoming mismatched because of the goal of acquiring a certificate in skin care major subjects. Based on this problem, the researcher made a questionnaire about the certificate utilization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skin care and 294 students were surveyed. It was found that it had a high degree of utilization to take a job, but that it had below normal level on utilization after entering the industrial field.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I propose to review the need to reorganize the skin care curriculum, which is based o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beginning in 2014. Education experts at the college of skin care should continue to develop a curriculum centered on academic subjects and industrial field curriculum as closely as possible, by focusing on the direction and trend of the industry's branches and industry experts.

Keywords : Flexible configuration, Job module, Industrial fiel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Questionnaire, Reorganization, Training session, Utilization

본 논문은 명지전문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Hong(Myoungji Coll.)

Tel: +82-10-8936-3064 email: hms19@naver.com

Received August 31, 2017

Revised (1st September 25, 2017, 2nd October 10,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1. 서론

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권 지역에서 2014년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9개 2년제 대학교의 피부미용을 전공한 졸업생 150명, 산업체 현장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자기평가기재방식을 이용하였다. 총 294명이 응답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status of respondents

	Status	Frequency(N)	Percentage (%)
Age	20s	147	50.0
	30s	68	23.1
	40s	61	20.7
	Over 50	18	6.1
Scholarship	High school diploma	46	15.8
	College graduate	103	35.3
	University graduate	113	38.7
	Over graduate school	30	10.3
Working Period	Less than 1 year	55	18.8
	1 year to 3 year	58	19.9
	3 year to 5 year	40	13.7
	5 year to 7 year	58	19.9
	Over 7 year	81	27.7
Position	Practitioner (Manager)	176	60.7
	operator	62	21.4
	Beauty education instructor	45	15.5
	Etc	7	2.4
Worker type	Medical Skin Care	92	32.4
	Skin Care (Spa)	103	36.3
	Department of Beauty	26	9.2
	Beauty education field	59	20.8
	Etc	4	1.4
Number of certificates in school	No	17	5.8
	1-2	98	33.6
	3-4	117	40.1
	5-6	42	14.4
	Over 7	16	5.5
	Etc	2	.7

1.2 연구내용 및 방법

1.2.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통계 6문항,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의 활용가치 즉, 채용 시 활용가치 6문항, 입사 후 활용가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설문지를 하였다. 측정항목들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범위를 갖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Questionnaire configuration

	Status	Contents	Item	Quiz form
Demographic and social variables	Respondent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Multiple Choice method
		Worker characteristics	3	
		Number of certificates	1	
Value of utilizing certificate during school	Use value when hiring	Employment choice influence	1	Likert 5 scales
		Expansion of employment field	1	
		Helping you adapt to field work	1	
		Recommended for juniors	1	
		Preferred at new recruitment	1	
		Affected employment results	1	
		Value after employment	Salary influence	
Low turnover to other sectors	1			
Excellent on-site work ability	1			

1.2.2 설문지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채용 시 활용가치는 Cronbach's α 값이 0.805로서 높았고, 입사 후 활용가치는 0.661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Status	Contents	Item	Cronbach's α
Value of utilizing certificate during school	Use value when hiring	Employment choice influence	1
		Expansion of employment field	1
		Helping you adapt to field work	1
	Value after employment	Recommended for juniors	1
		Preferred at new recruitment	1
		Affected employment results	1
		Salary influence	1
		Low turnover to other sectors	1
		Excellent on-site work ability	1

1.2.3 자료분석방법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 응답 결과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Ver. 24: IBM,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그리고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의 활용가치에 대한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방법으로 요인 추출하고, 직접 오블리민 방법으로 요인회전을 하였다. 아울러 순위 척도(ordinal scale)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Spear man의 Rho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 개수 별로 활용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1.3 연구결과

1.3.1 자격증 취득 활용가치 요인분석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의 활용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9개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과 비 직각 회전 방식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KMO 값이 0.784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요인 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값이 615.764(df=36, p=0.000)로서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인을 추출하려는 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윳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윳값이 1.0 이상인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3 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요인 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윳값이 3.099, 설명비가 34.437%로 나타났으며 ‘채용시 활용가치’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고윳값이 1.727, 설명비가 19.189%로 나타났으며 ‘입사 후 활용가치’로 명명하였다.

Table 4. Useful factor analysis

Status	Component	Communalities	
		1	2
Use value when hiring	Employment choice influence	.773	.586
	Expansion of employment field	.683	.465
	Helping you adapt to field work	.683	.511
	Recommended for juniors	.738	.533
	Preferred at new recruitment	.749	.575
	Affected employment results	.562	.338
Value after employment	Salary influence		.818
	Low turnover to other sectors		.779
	Excellent on-site work ability		.700
Characteristic value		3.099	1.727
Dispersion value		34.437	19.189
Cumulative dispersion value		34.437	53.626

KMO=.784, Bartlett's test result X2=615.764(df=36,p=.000)

1.3.2 각 변수 간의 상관분석

각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재학 중 자격증 개수는 채용 시 활용가치와 관련된 항목에서 일부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즉, ‘피부미용 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이 취업선택 영향’, ‘피부미용 교과목 관련 자격증으로 도전할 수 있는 취업 분야 확장’, ‘신입 채용 시 피부미용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자 더 선호’, ‘신입 채용 시 피부미용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보유)개수의 취업(면접) 결과 영향’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입사 후 활용가치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채용 시 활용가치에 관한 6개 항목 간에는 모든 부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입사 후 활용가치에 관한 3개 항목 간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채용 시 활용가치와 입사 후 활용가치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일부 항목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채용 시 활용가치에서 ‘피부미용 교과목 관련 자격증으로 도전할 수 있는 취업분야 확장’, ‘수습기간에 피부미용교과목 자격증으로 인해 현장실무 적응 유리’, ‘신입 채용 시 피부미용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보유)개수의 취업(면접) 결과 영향’과 입사 후 활용가치의 ‘피부미용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현장실무 능력이 우수’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parameter

Status	Number of certificates in school	Use value when hiring						Value after employment		
		Employment choice influence	Expansion of employment field	Advantage for practical adaptation	Recommended for juniors	Preferred at new recruitment	employment results	Salary influence	Low turnover to other sectors	Excellent on-site Work ability
Number of certificates in school	1.000									
Use value when hiring	Employment choice influence	.135 *	1.000							
	Expansion of employment field	.126 *	.456 **	1.000						
	Advantage for practical adaptation	-.001	.370 **	.379 **	1.000					

Value after employment	Recommended for juniors	.111	.432 **	.366 **	.470 **	1.000				
	Preferred at new recruitment	.122 *	.460 **	.323 **	.418 **	.506 **	1.000			
	Affected employment results	.177 **	.354 **	.310 **	.304 **	.279 **	.382 **	1.000		
Value after employment	Salary influence	-.096	-.077	-.002	.053	-.043	.060	.045	1.000	
	Low turnover to other sectors	-.076	-.124 *	-.011	.020	-.042	.006	.050	.447 **	1.000
	Excellent on-site work ability	-.039	.079	.152 **	.264 **	.108	.182 **	.058	.404 **	.329 **

* p<.05, **p<.01

1.3.3 재학 중 자격증 개수에 따른 자격증 활용 가치의 차이

재학 중 자격증 개수에 따른 자격증의 활용 가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변수에 대해서는 사후검증(post hoc)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취업선택 영향’, ‘면접결과 영향’, ‘연봉 영향’, ‘타 분야로 이직률 낮음’ 변수는 재학 중 자격증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Table 6. At an average margin in the value of use according to the number of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tatu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icance level	
Use value when hiring	Employment choice influence	Between groups	16.259	4	4.065	6.801	.000
		In group	169.741	284	.598		
		sum	186.000	288			
Use value when hiring	Expansion of employment field	Between groups	3.553	4	.888	1.828	.123
		In group	138.464	285	.486		
		sum	142.017	289			

	Helping you adapt to field work	Between groups	.667	4	.167	.319	.865		
		In group	149.002	285	.523				
		sum	149.669	289					
	Recommended for juniors	Between groups	1.755	4	.439	.999	.408		
		In group	125.159	285	.439				
		sum	126.914	289					
	Preferred at new recruitment	Between groups	1.524	4	.381	.752	.557		
		In group	143.833	284	.506				
		sum	145.356	288					
Affected employment results	Between groups	5.586	4	1.396	2.176	.072			
	In group	182.911	285	.642					
	sum	188.497	289						
Value after employment	Salary influence	Between groups	10.756	4	2.689	4.065	.003		
		In group	188.540	285	.662				
		sum	199.297	289					
	Low turnover to other sectors	Between groups	13.930	4	3.483	5.375	.000		
		In group	184.008	284	.648				
		sum	197.938	288					
	Excellent on-site work ability	Between groups	4.179	4	1.045	1.243	.293		
		In group	239.490	285	.840				
		sum	243.669	289					

앞서 살펴본 자격증 취득의 활용 가치의 평균 차이가 확인된 4가지 변수에 대하여 사후검증(post hoc)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사후검증에 있어서 분산 동질성 검정을 먼저 확인하여 등분산성을 만족하면 LSD를 사용하였고,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Tamhane의 T2를 사용하였다.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이 취업선택에 영향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재학 중 자격증이 5~6개 그룹(Mean=4.36)이 1~2개 그룹(Mean=3.87)보다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이 취업(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재학 중 자격증이 5~6개 그룹(Mean=3.76)이 1~2개 그룹(Mean=3.37)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부미용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여부에 따라 연봉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항에 대하여 재학 중 자격증이 1~2개 그룹(Mean=2.69)이나 3~4개 그룹(Mean=2.70)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타 그룹이 3~4개 그룹보다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기타 그룹은 재학 이전에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피부미용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다른 분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 라는 사항에 대하여 재학 중 자격증이 1~2개 그룹(Mean=2.52)이나 3~4개 그룹(Mean=2.49)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Average comparison per post verification of the useful according to the license number of certificates

		N	Employment choice influence		Affected employment results		Salary influence		Low turnover to other sectors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No	(a)	17	3.71	.772	3.35	.786	2.82	.951	2.59	.870
1~2	(b)	98	3.87	.845	3.37	.830	2.69	.848	2.52	.826
3~4	(c)	116	4.11	.669	3.52	.750	2.70	.690	2.49	.657
5~6	(d)	42	4.36	.692	3.76	.850	2.60	.885	2.57	1.039
Over 7	(e)	16	3.38	1.147	3.69	.873	3.06	1.063	3.00	.894
Etc	(f)	2	3.50	.707	3.00	.000	3.00	.000	2.50	.707
			d>b (Tamhane, p=.008)		d >b (LSD, p=.008)		b>c (Tamhane, p=.006), f>c (Tamhane, p=.000)		b>c (Tamhane, p=.001)	

2. 결론

미용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직접 응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학문의 특수성을 좀 더 이해하고 전문인 양성과 전문 연구 인력으로써 실습과 이론이 겸비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1]. 이에 우리나라 미용전문대학은 미용의 이론적 정립과 기술을 숙달시켜 사회에 중추적인 능력과 교양을 겸비한 2 IC 전문미용인을 양성하고, 미용분야의 중견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함을 목표로 한다[2].

현재 우리나라 미용 대학 교육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산업현장보다 학과 중심이며, 현장의 직업 모듈보다는

과목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교육훈련시간에서도 유연한 구성보다 시간 이수가 수료의 요건이 되고 있으며, 자격취득이 교육훈련의 목표가 되고 있어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3]. 전문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용 전공 학생들은 미용 교육을 제대로 활용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교과과정의 미용기술 습득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 대부분이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의 한계 및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졸업 후 산업계로 진출한 학생들은 일반 미용학원이나 직업훈련원 등을 통해 취업한 일반인들과 차별화된 미용 전문가로 인식되는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4].

현대 미용 산업의 발전으로 전문 미용인의 역할 비중이 커지면서 미용 교육의 현실적 변화에 부합되는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용 교육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고양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요구를 바탕으로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5].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표준화된 직업 능력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능력을 포함해야 하고, 현장 수요에 따른 자격의 계속된 교육과 재직근로자의 경력개발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해야 한다[6].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 능력표준 체계를 개발하여 직업교육과정 및 훈련과정 그리고 자격 등의 출제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7]. 대표적으로 미국의 NSS(National Skill Standards), 영국의 국가 자격체계(NQF), 호주의 직업 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사례로 들 수 있겠다[3].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직업 능력표준(NOS)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직무 능력표준(KSS)이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이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8].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이란 새로운 인재 개발 인프라로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을 현장 적합성에 맞게 높이

고, 교육·훈련 이수자 및 자격취득자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해서 중복된 투자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일 중심의 평생학습을 촉진한다는데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9]. 이는 미래에 국가경쟁을 주도할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업체의 직무 분야에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현장 활용성 증대 방안으로 학습 모듈과 활용패키지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10].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에 대한 국가적 논의는 2000년 초반부터 진행됐으며, 2010년에 들어서면서 고용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각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의 효율화를 위한 조정 및 표준 개발·적용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고용노동부의 NOS와 교육과학기술부의 KSS의 명칭이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으로 통합되었다[8].

선행 연구[11]에 의하면 교육부는 지난 2014년도부터 250개 직무 분야에 대해 2년제 대학교에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과과정 개편을 실천과제로 설정·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에 2년제 대학교 피부미용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는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었으며,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9개의 2년제 대학교 교과과정 중 피부미용기초 교과과정은 미용사(피부) 국가기술검정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각 대학은 특성에 따라 피부미용 직무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산업체 유형에 따라 메디컬스킨케어, 살롱케어, 스파테라피 등 교과목 편성 차이를 보였다. 9개 전문대학의 전공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그중 자격증과 관련된 실기교과목의 과목 수는 평균 4.78 ± 0.67 개로 구성 되었으며, 각 대학의 실기 교과목 구성으로 A 대학은 페이셜관리실습, 전신관리이론·실습, 피부 체형분석, 림프·아로마테라피, B 대학은 기초 피부 관리실습, 림프 배농, 응용 피부 관리실습, C 대학은 에스테틱 I·II·III, 바디디자인 I·II, 아로마 림프 관리, D 대학은 안면 관리실습, 전신관리이론실습, 안면 특수이론·실습, E 대학은 기초 피부관리실습, 피부 림프 실습, F 대학은 안면 피부 관리실습, 전신 피부 관리실습, 림프드레나주 실습, G 대학은 피부 실무 I, 기초피부

미용 I, 기초피부미용 II, H 대학은 피부미용학, 바디트리트먼트, 응용 피부관리, I 대학은 피부미용실, 피부분석과 고객관리, 스킨·립스·테라피 등과 같이 짜여 있었다.

본 연구자는 피부미용학과 전공 관련 자격증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의 흐름에 맞추어 심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14년부터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발된 피부미용 전공 관련 자격증의 활용도를 알아보았다.

3. 결론

아직 우리나라 피부미용대학 교육은 산업현장보다 학과 중심이며, 현장의 실무 적합성보다는 과목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학기 중 피부미용 전공과목 및 심화 과정 과목에 관련된 여러 자격증 취득이 교육훈련의 목표가 되고 있으며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개수는 실기전공 과목 중심으로 편성된 3~4개가 가장 많았다. 졸업 후 취업 시 자격증 활용가치 관련해서 일부 긍정적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즉, ‘피부미용 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이 취업선택 영향’, ‘피부미용 교과목 관련 자격증으로 도전할 수 있는 취업 분야 확장’, ‘신입 채용 시 피부미용교과목 관련 자격증 취득자 더 선호’, ‘신입 채용 시 피부미용교과목 관련 자격증의 취득(보유)개수 취업(면접) 결과 영향’ 요소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사 후 활용가치와 관련해서 ‘연봉 영향’, ‘타 분야로 이직률 감소’, ‘현장실무능력 우수성’ 등에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기 중 취득한 피부미용 교과 관련 자격증은 졸업 후 산업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도는 높았지만, 산업 현장에 진입한 후에 활용도는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의 실무내용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취업자의 근무환경 요건 중 수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가치는 긍정적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으로, 피부미용학과 교육계에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개발·시행되고 있는 피부미용 교과과정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교육계에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피부미용 산업체의 방향과 트렌드 분석을 통해 산업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검토하면서 학과 중심의 교육 과정과

산업현장 교육과정이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과 일의 연계를 통해 능력 중심으로 수준별 교육 적합성을 높이고 학기 중 취득한 학생들의 자격증 활용도가 취업 후 현장전문가들의 요구에 맞는 높은 실무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점으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교과과정을 사용하는 피부미용전공 대학 중심으로 서울·경기권 9개 2년제 대학 졸업생과 서울·경기권 지역의 현장 전문가들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 빠르게 변화되는 산업체의 방향과 트렌드에 절충할 수 있는 산업 맞춤형 피부미용 교과과정의 재편성 개발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논문이 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H. S. Yoo, E. Y. Choi, A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 and Related Variables in Beauty-Related Departm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The Korean Society for Aesthetics and Cosmetology, vol. 11, no. 3, pp. 521-534, June, 2013.
- [2] G. O. Kang,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smetic Educational and Industrial System in Korea,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of Beauty Science, Kwang Ju Women's University, 2004.
- [3] J. G. Ku, A Study on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tandards and Education Training Program in the Machinery Industry, Sunmoon University, 2005.
- [4] H. Y. Leem, W. J. Kim, M. Y. Kim, M. D. Hwan, A Study on the Curriculum Improvement of Beauty Education in College - Focused on Busan-South Gyeongsang Province Area, The Korean Society Cosmetology, vol. 17, no. 1, pp. 49-56, March, 2011.
- [5] H. Y. Leem, A Study on the Curriculum Improvement for the Achievement of Technical Goal of Beauty Education in Colleg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2010.
- [6] B. K. Jang, H. S. Yang,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echnology Sectors Educational Programs Using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on Education Resul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2, pp. 5420-5429, December,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2.5420>
- [7] D. J. Kim, A Study on the Operation Plan of Qualification System based on completing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Course, Department of Industrial

Syste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Industry, Myongji University, 2012.

- [8] J. E. Kim, I. H. Kim. Study of Development for Competency Standards in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The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no. 31, pp. 43-93, January, 2012.
- [9]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from <http://www.ncs.go.kr>
- [10] D. Y. Kim, J. S. Kim, Analysis of Korea'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Development Trends, Korea Technology Education Society, vol. 13, no. 3, pp. 22-46, December, 2013.
- [11] E. K. Byun, "Analysis of Major Tracks in Skin Beauty Curriculums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Major in Beauty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am University, 2014.

홍 미 숙(Mi-Sook Hong)

[정회원]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의약식품 대학원 의약식품학과 (향장학석사)
- 2016년 11월 ~ 현재 : (주)클라우드 드그라운드 교육사업부 부장
- 2012년 7월 ~ 현재 : 명지전문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과 교수

<관심분야>
뷰티산업, 직업교육

김 윤 정(Yun-Jung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중앙대학교 의약식품 대학원 의약식품학과 (향장학석사)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응용생물 공학부 농화학과 (박사과정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명지전문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과 교수

<관심분야>
직업교육프로그램